

무등산 호랑이의 굴욕 '희생양'

〈삼성 오승환 300세이브〉



KIA 타이거즈, 삼성에 2-3 역전패
 선발 브룩스 7이닝 2실점 빛바랜 역투
 타선 집중력 떨어져 잔루만 10개
 오승환에 100·200·300 세이브 헌납 진기록



‘호랑이 군단’이 또 다시 삼성 오승환 기록의 희생양이 됐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3차전에서 2-3 역전패를 기록했다. 선발 브룩스가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선발 싸움을 이끌었지만, 집중력 떨어진 타선이 승리를 쟁겨주지 못했다.

그리고 9회초 2-3 역전을 허용한 KIA는 삼성 마무리 오승환에게 통산 300번째 세이브를 안겨줬다. 오승환의 100세이브, 200세이브도 모두 KIA전에서 기록했다.

시작은 좋았다. 브룩스가 김지찬의 좌익수 플라이를 시작으로 구자욱의 유격수 땅볼과 피렐라의 2루수 땅볼로 1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선두타자 강민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2회, 브룩스가 박해민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강한울과 이원석의 방망이를 헛뜯게 했다. 3회에는 8개의 공으로 3개의 땅볼을 만들었다.

4회 1사에서 피렐라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지만 강민호와의 승부 때 우익수 이우성이 수비로 파울플라이를 잡으면서 투아웃. 박해민에게 볼넷을 내준 뒤 강한울의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향하면서 4회도 실점 없이 마무리했다.

브룩스가 5회부터 매 이닝 위기를 맞았다. 2-0으로 앞선 5회초 이원석의 볼넷과 송준석의 2루타로 무사 2-3루. 김상수의 유격수 땅볼 때 실점이 기록됐다. 이후 두 타자를 2루 땅볼로 처리하면서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6회초 선두타자 피렐라를 중전안타로 내보낸 브룩스가 스타트를 끊은 주자를 잡으려다 2루에 약수구했다. 이어 강민호의 중전 안타가 나오면서 승부가 2-2 원점으로 돌아갔다.

브룩스는 직선타로 박해민을 잡은 뒤 강한울을 상대로 4-6-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만들며 리드는 내주지 않았다.

7회도 연속 안타로 시작했지만 브룩스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무사 1-2루에서 김상수의 번트타구가 높게 띄고, 브룩스가 직접 몸을 날려 공을 잡아냈다. 이어 터커가 김지찬의 땅볼 타구를 잡았지만 이미 주자들이 다음 베이스로 향한 상황. 김지찬이 먼저 1루 베이스를 찍으면서 내야안타가 됐다.

브룩스가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뒤 피렐라는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7이닝 2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브룩스가 ‘에이스’ 역할을 수행했지만,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다. KIA는 2-2로 맞선 8회 1사에서 나온 김선민의 볼넷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고, 브룩스의 승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9회 승패가 갈렸다. 9회초 2사에서 구자욱의 2루타가 나오자 KIA가 장현식에서 정해영으로 투수를 교체했다. 피렐라의 고의사구 뒤 강민호의 볼넷으로 2사 만루가 됐다. 박해민과의 승부에서 폭투가 나왔고, 3루에 있던 구자욱이 홈에 들어왔다.

삼성이 1점 차 리드를 잡자 9회말 마무리 오승환을 투입했다. 1사에서 최원준이 좌전안타를 만들며 기록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김선민의 유격수 플라이와 터커의 헛스윙 삼진이 나오면서 오승환의 통산 300번째 세이브가 기록됐다.

삼성 오승환이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KIA와의 경기에서 3-2로 한 점 차로 앞선 9회에 등판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 투구를 하고 있다. 오승환은 KBO 통산 300세이브를 달성했다. /연합뉴스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브룩스가 4회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반 확실하게 승부를 내지 못한 게 아쉬웠다. 1회말 KIA는 최원준의 볼넷과 김선민의 우전안타로 문을 연 뒤 터커의 중전안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형우 나지환이 외야플라이로 물러났고, 황윤호의 볼넷 뒤 이우성도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2회에도 한승택의 선두타자가 나오는 등 3개의 안타로 1점을 만들었지만, 터커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더는 점수를 뽑지 못했다. 4회를 빼고 매 이닝 주자가 나갔지만 10개의 잔루가 남았고, 오승환에게 다시 한번 세이브 기록을 선물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선발 오디션 2라운드 ... 임기영 27일 한화전 등판



임기영

“자리는 있다. 잡으면 된다.”

KIA 타이거즈의 선발 오디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선발 고민 속 어려운 행보를 이어가던 KIA는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했던 한 주 ‘원투펀

츠’의 활약으로 마운드 운영에 한숨을 돌렸다.

20일 LG전과 25일 삼성전 등 두 차례 등판을 소화한 브룩스가 13이닝을 소화해줬고, 23일 삼성을 상대로 멧넨이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며 KBO리그 첫 승도 달성했다.

앞서 이어지는 22일 LG를 상대로 6.2이닝 1실점의 좋은 성적표를 내면서, 데뷔 후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졌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21일 LG전에서 첫 선발등판에 나선 김유신도 4.1이닝을 던지면서 초반 싸움을 해줬다.

‘원투펀츠’가 자리를 잡으면서 마운드 운영의 폭을 넓힌 윌리엄스 감독은 ‘확실한 선발’이 나올 때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선발 경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25일 “누군가 기회를 잡을 때까지 선발 경쟁이 계속된다. 이미 (선발) 자리는 있다. 잡기만 하면 된다”며 “누군가 꾸준한 피칭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기대하는 선발의 모습은 유리한 볼카운트를 만들며, 스트라이크를 던져 줄 수 있는 것. 일단 임기영이 선발 경쟁의 또 다른 막을 연다.

지난 1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임기영이 27일 한화전을 통해서 세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선다.

선발 경쟁을 했던 김현수는 볼펜에서 역할을 맡게 됐다. 김현수는 25일 좌완 장민기와 자리를 바꿔 1군에 등록됐다.

다음 ‘임시 선발’ 자리는 미확정. 윌리엄스 감독은 “원투펀츠가 역할을 해주면서 마운드 운영에 도움이 됐다. 볼펜이 일찍 나오고 연장전도 많이 하면서 볼펜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다”며 “우리는 다양한 선발 옵션을 가지고 있다. 다음 주 상황을 보면서 선발을 기용하겠다”고 선발 무한 경쟁을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집중력 싸움에서 졌다

K리그1, 대구에 0-1 패배

K리그2 전남은 적지서 3연승

광주FC가 14개의 슈팅에도 연승을 만들지 못했다.

광주가 지난 24일 광주죽전체육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K리그1 2021 12라운드 홈경기에서 0-1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는 후반을 앞두고 14개의 슈팅을 쏟아내며 ‘물량 공세’를 펼쳤지만 집중력 싸움에서 밀렸다. 판정도 아쉬웠다.

전반 33분 헤이스의 패스를 받은 펠리페가 페널티지역까지 진입했지만, 홍정운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다.

다리를 든 홍정운이 팔까지 이용해 펠리페를 저지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파울 판정은 나오지 않았다.

아쉬운 전반전을 보낸 광주는 후반전에 승부를 걸었지만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가 수비 실수로 문전에서 에드가에게 슈팅 기회를 허용했다. 다행히 공은 골대를 비껴나면서 광주가 한숨을 돌렸다.

위기를 넘긴 뒤 김봉진의 왼발 슈팅을 시작으로

펠리페, 김주공의 슈팅이 골대를 뚫지 못했다. 후반 14분에는 헤이스의 슈팅이 골키퍼 최영은에게 막혔다.

후반 23분 헤이스의 프리킥을 시작으로 알렉스, 김원석의 슈팅 그리고 김봉진의 헤더까지 이어졌지만, 세밀함이 떨어졌다. 2분 뒤 나온 헤이스의 위력적인 슈팅도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잇달아 기회를 놓치면서 광주의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그리고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됐다.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를 시작으로 대구의 공격이 전개됐다.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향해 골키퍼 윤보상이 뛰어올랐지만, 공을 잡지 못했다.

이런기 앞에 공이 떨어졌지만 견어내지 못했고, 골대 앞에 있던 에드가가 빈 골대로 공을 밀어 넣었다.

실점 이후 광주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공세에 나섰다. 세밀함이 부족했다. 14개의 슈팅이 모두 골대를 뚫지 못하면서 광주는 0-1패를 기록했다.

“집중력”을 강조했다던 김호영 감독은 “찬스가 있었을 때 득점을 못 하자 수비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게 패인이 됐다. 그동안 경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좋지 못하고 부진했던 경기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적지에서 3연승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K리그2 8라운드 경기를 벌인 전남은 상대의 퇴장 호제 속 1-0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이뤘다.

후반 32분 부산 미드필드 이래준이 김현욱에게 거친 태클을 하면서 레드카드를 받았다.

수석 우위를 점한 전남은 후반 43분 알렉스와 발로텔리 두 외국인 선수로 결승골을 만들었다.

중원에서 공을 몰고 올라간 알렉스가 공을 찍어 중앙에서 전진하던 발로텔리 앞에 떨어트렸다. 세 명의 수비수에 둘러싸인 발로텔리가 골키퍼를 마주한 채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발로텔리의 시즌 1호골. 진정을 상대로 만든 K리그 복귀골이기도 하다.

발로텔리는 지난 2018년 부산에서 K리그에 데뷔했지만 부산으로 계약이 조기 해지됐었다. 올해 전남 유니폼을 입고 K리그로 돌아온 발로텔리는 진정을 상대로 결승골을 날리며 전남 3연승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이날 승리로 전남(4승 3무 1패·8득점)은 대전(5승 3패·11득점)과 승점 15로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2위를 유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충장중 춘계 중학 야구대회 예선 우승



2021년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제68회 전국 중학야구선수권대회 예선대회에서 충장중이 정상에 올랐다. 충장중은 최근 함평야구장에서 끝난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첫째 날 진흥중과의 경기에서 6-0으로 이긴 충장중은 이어 둘째 날 대결에서는 무등중을 11-5로 제압했다. 그리고 마지막 동성중과의 경기에서도 8-4로 승리하면서 우승팀이 됐다.

충장중은 이번 우승으로 오는 6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68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한편 27일부터는 제8회 수완센터별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도 열린다. 대회는 분당구장에서 열리며 3일간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대회 시상내역

▲우승 : 충장중 ▲준우승 : 진흥중 ▲최우수선수상 : 고도영(충장중) ▲우수투수상 : 배서진(충장중) ▲타격상 : 박성하(0.556·9타수 5안타·진흥중) ▲최다투수상 : 김태형(2개·무등중) ▲최다타점상 : 서영준(7타점·진흥중) ▲감독상 : 염승찬(진흥중) ▲미기상 : 최승혁(진흥중) ▲감독상 나길남(충장중 감독) ▲지도상 : 오동원(충장중 교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